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김상준기자 | 승인 2026.05.17 17:42 | 10면

재해없는 안전 풍년농사 위한 훈련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 14일 송곡저수지에서 합천소방서, 긴급동원업체, 공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지사장 이주헌)는 지난 14일 송곡저수지에서 합천소방서, 긴급동원업체, 공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주요훈련으로는 집중호우 및 폭우시 저수지 제방 일부 구간에 사면 유실 및 수위 상승으로 제방 월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해 최초 상황 발생 이후 상황전파, 주민대피 요청, 응급복구 장비 투입, 부상자 이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운영상태, 유관기관 및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해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하도록 훈련이 이뤄졌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구조·이송하는 절차까지 진행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도 점검했다.

한편 이주헌 지사장은 "재난 대응은 현장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해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